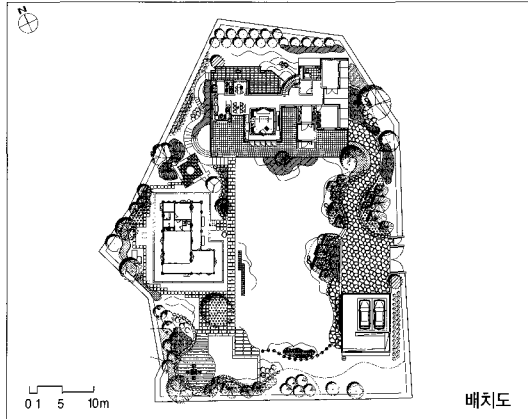


행복한 나의 집

Mi Hogar

명제근 / 정회원, 웰하우스 종합건축사사무소
by Myoung, Je-geun, KIRA



대지위치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301-7번지	외부마감	붉은벽돌 치장쌓기(C.H알바니), 회강석물갈기(보실크)
지역/지구	자연 녹지지역	내부마감	바다-대리석 페티컬라(코로마마일), 원목마루, 벽-이트도장
주요광도	전동주택	천장-V.P	미송합판위지당크기
대지면적	2,245.00㎡	설비설계	무연
건축면적	395.95㎡	구조설계	상영구조
연면적	426.93㎡	전기설계	준영 E&C
건폐율	17.64%	시공사	(주)웰하우스
용적율	21.69%	실계열일	김오진, 고희정
규 모	본동(양식) 지상 2층, 별동(한옥, 주차장 관리수소) 지상 1층	건축주	김태환
구 조	본동, 별동(주차장 관리수소)-철근콘크리트조, 별동(한옥)-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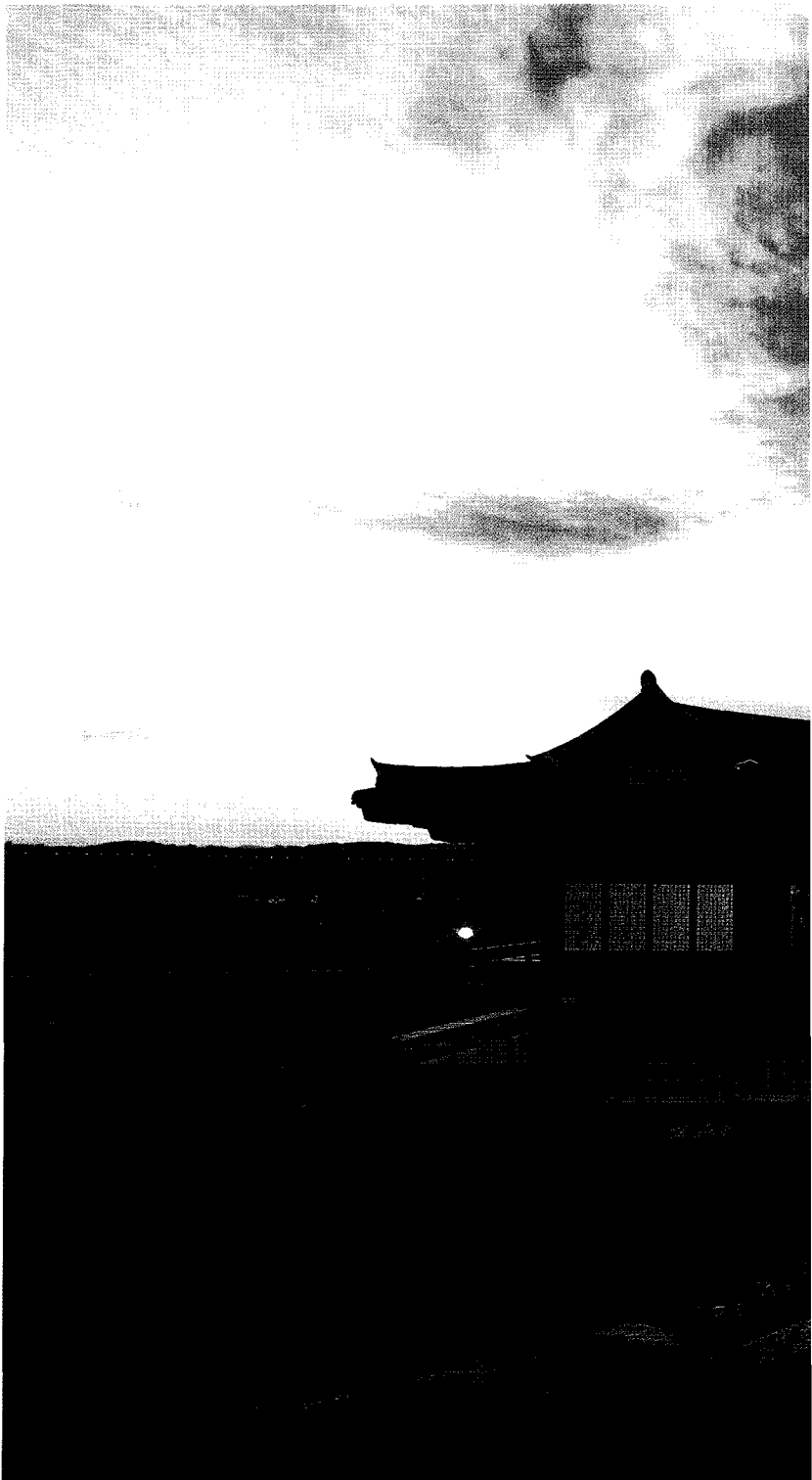
이 주택의 건축주는 30년 동안 남미의 해외에서 생활하신 사업가이다. 힘든 티지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생활을 하고자 주택을 계획하게 되었다. 처음 현장을 찾았을 때는 한창 농사준비철인 초봄이었다. 계획대지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주변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 전형적인 우리 농촌의 풍경이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한 대지는 북쪽으로는 주산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남한강줄기와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우수한 대지였다. 대지형상은 Level고가 약 8m 정도 나는 경사형 지반을 콘크리트 옹벽을 사용하여 이미 평탄하게 조성해 놓음으로써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계획을 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장을 둘러본 후 건축주는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무적인 대화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많지 않은 대화 속에서도 의도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건축주의 부재중에 계획하고 진행하는 Project이기에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작업에 임하였다. 기본 설계 방향을 현대식 주택과 전통 한옥주택, 한식 담장 등 현대식과 고건축이라는 두 양식을 한 대지 안에 조화롭게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지의 남북방향을 축으로 주산을 등지고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서후고형의 본동을 계획하고, 동서방향으로 전통 한옥과 관리동을 계획하였다. 한옥의 부지가 진입구 Level보다 낮게 형성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문입구와 한옥 앞마당의 Level을 분리하여, 마운딩 형태의 조경계획을 함으로써 진입구와 계획대지 간에 발생된 Level 차를 극복하였다.

본체의 각 실 배치는 일자(-)형태의 공간에서 올 수 있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정형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와의 협의과정에서 계획방향이 바뀌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오랜 외국생활에 익숙해진 건축주의 생활방식으로, 거실을 비롯한 공적공간은 1층에, 침실 등의 사적공간은 2층에 계획되었다.

현관과 거실을 근접 계획하여 동적인 동선을 최소화하게 하였고, 현관입구 전면에 이미지월과 콘솔을 계획하여 내부로의 접근 시 방향성을 제시





부지 조감



독층 전경



진입공간의 주택입면

하고자 하였다. 서재에는 고층창을 두어 외부 상록수를 실내에서도 사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라운드형 창을 두어 단조로워 질 수 있는 입면 창에 변화감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거실 천정을 높게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거실 창을 통해 2층에서도 조망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거실과 연계되는 주방·식당은 동선을 줄이고, 전·후면 창을 계획하여 개방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연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직동선을 타원형으로 계획하고, 커튼월 창을 계획하여 타원형 개단과 조화되도록 하였다.

2층은 가족실과 부부침실, 각 자녀들의 침실을 두고 각자의 공간 내부에 전용 욕실을 계획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상시 거주하게 될 건축주 내외의 부부침실은 테라스를 통해 자연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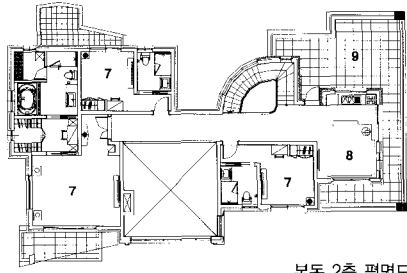
주택 외관은 박공형태의 지붕으로 주요 산세의 스카이라인을 이어주고, 간결한 느낌의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요구로 시공과정 중에 마감재를 변경하였다. 주변 환경을 읽으며 대지와 연계하여 풍수적인 부분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수한 주변 경관을 주택 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Project가 그러하겠지만, 건축주의 부재중에 진행되었기에 협의 하에 결

정된 부분 또한 건축주 이상의 조심스러움과 고민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된 시점에서 지나 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니 아쉬움, 보람 등의 만감이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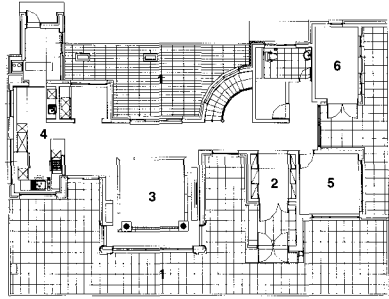
도심지에 지어지는 대규모 건축물들은 설계디자인과 시공성 등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그 외 소규모 건축물 등은 아직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느낀다. 그러한 변화는 설계자와 시공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건축주와 함께 모두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있는 설계 도서가 만들어져야 공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고, 완성도 높은 건축물과 많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만의 고유의 건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설계자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설계자의 창작성을 반영하여 공사 예산, 시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보완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내·외부 마감재에서부터 외부 조건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설계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이 Project를 통해 다시금 느낀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믿고 맡겨준 건축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본채양식 주택)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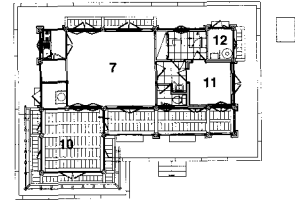


본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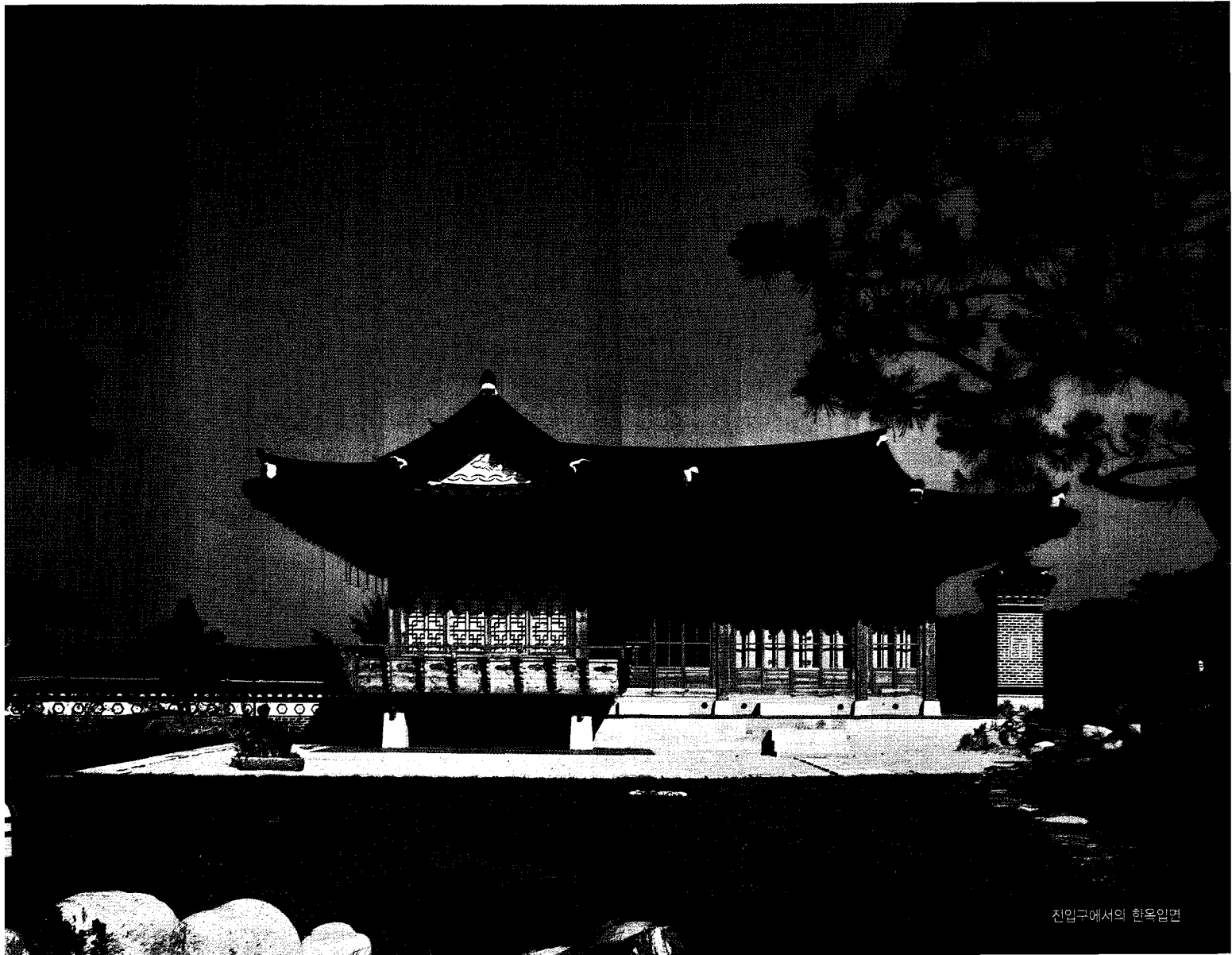


본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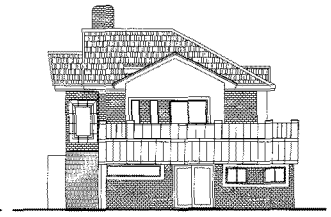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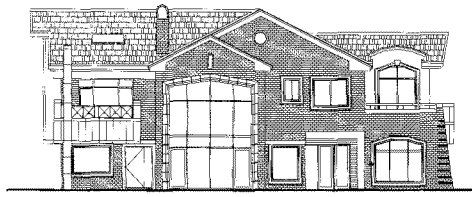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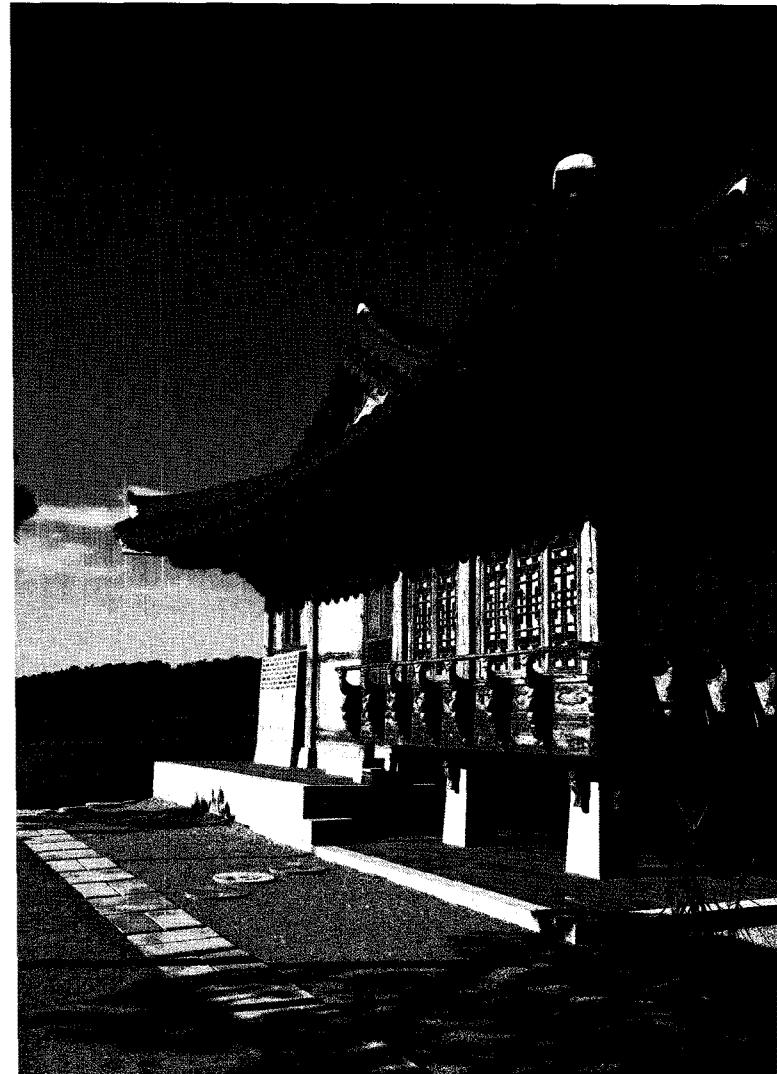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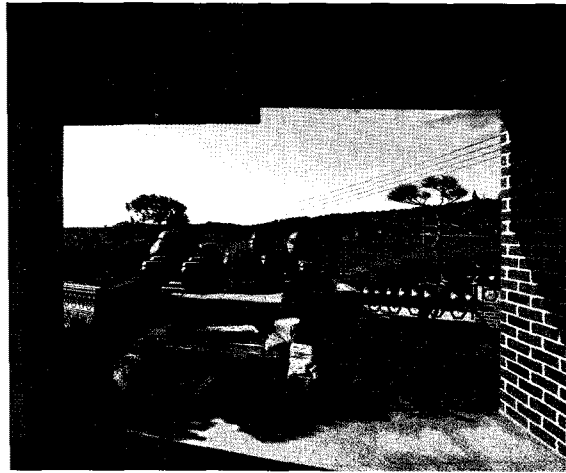
- | | |
|------------|---------|
| 01. 테라스 | 07. 방 |
| 02. 현관 | 08. 가족실 |
| 03. 거실 | 09. 발코니 |
| 04. 식당, 주방 | 10. 누마루 |
| 05. 서재 | 11. 한층막 |
| 06. 보일러실 | 12. 정지간 |



한옥 1층 평면도



진입구에서의 한옥일면



본동 정면도

본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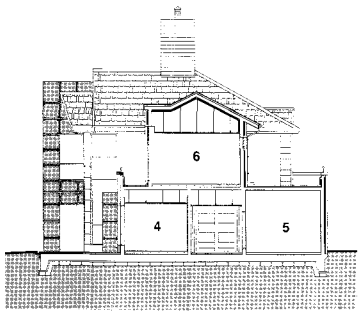
0 1 5m

한옥 정면도

한옥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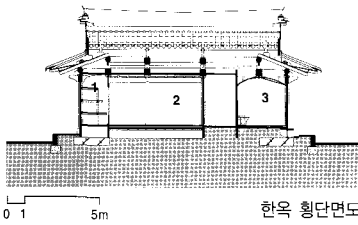
- | | |
|-------------------|------------------|
| 1. 부지 시속 공간 | 5. 안방에서 휴정 모습 |
| 2. 양옥과 한옥 사이의 정독대 | 6. 거실과 복도를 통한 조망 |
| 3. 한옥 남측 추녀 및 누마루 | 7. 누마루를 통한 외부조망 |
| 4. 본채 현관 | |





- 01. 반침
- 02. 방
- 03. 화장실
- 04. 서재
- 05. 보일러실
- 06. 가족실

본동 종단면도



한승 횡단면도

